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평생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 발전 과제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Paradigm Conversion and Task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under the Economic Crisis of European Union

이성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육학과

Sung-Kyun Lee (Isk@sdu.ac.kr)

요약

유럽의 통합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현재 각국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분야에서도 단일 유럽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발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상호 조절을 통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유럽전체의 재정위기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구축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간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이 1인당 국민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유럽연합 | 사회경제적 통합 | 평생교육정책 |

Abstract

Integration of Europe was started when European Union Treaty was concluded at Maastricht for the first time on December, 1991. Europe which may be called as a cradle of modern national state has realized a single Europe not only in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field but also in the political field. Under this background, it is considered that life-long education policy for developing a new integrated growth engine of EU requires educational response that may get ready for socio-economic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more than anything else. In particular, this policy is faced with an important task of having to achieve harmony of efficiency through diversity and mutual coordination in pursuing cooperation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field. However, notwithstanding their efforts, since 2008, some countries of EU were faced with economic crisis due to economic recession and this situation starts to drive the whole Europe even to the point of their financial crisis at last. This crisis is currently shaking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EU. This study intends to observe a status of establishing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promoting a policy for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EU and to analyze as to what kind of relevance adult participation rate of life-long learning among the countries belonged to EU has with per capita income and to explore as whether socio-economic integ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could be sustained based on problems of integrative life-long education system under the economic crisis of EU.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an implication required for presenting a new paradigm conversion, policy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life-long education of our country is intended to be deduced.

■ keyword : | Integration of EU | Socio-economic Integration | Life-long Education Policy |

* 본 연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접수번호 : #120424-001

심사완료일 : 2012년 06월 12일

접수일자 : 2012년 04월 24일

교신저자 : 이성균, e-mail : Isk@sdu.ac.kr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유럽연합 국가들은 세계화라는 도전에 맞서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경제, 사회적 통합발전 모델을 만들었으며 자국민들의 노동력 기술수준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투자 및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통합정책을 발전시켜왔다. 또한 그들은 사회구조적 변화, 즉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지식과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도래,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가져다 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과 문화적 가치관을 토대로 상호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고자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1]. 이와 같은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적 정책이슈로 등장한 평생교육정책에 주목을 하게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체제 개혁은 물론 지식기반 경제 및 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적응을 위해 성인들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재취업 훈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21세기 시장경제의 확대로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빈부격차와 개인주의가 더욱 확산되면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2]. 이때부터 평생교육정책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통합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3].

그러나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정책을 통한 사회경제적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몇몇 국가들의 경제침체로 인한 국가재정위기는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재정적 위기는 물론 유럽연합의 해체로 까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국가 중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와 경제체질 및 과도한 연금과 선심성 정책 등 공공부문의 개혁미진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이 근본적인 재정위기를 몰고 왔다고 보고 있다[4]. 이러한 남유럽의 금융경제몰락으로 인한 재정위기와는 다른, 재정 건전성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견고히 성장한 산업구조

를 갖춘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독일 및 그 외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면서 실업률이 도리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서로 다른 남유럽과 북유럽의 상황 속에서 재정적 위기에 놓여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측면에서 그 현황을 분석하고 평생교육협력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특히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소득수준과 각 국가들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 노력이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평생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유럽의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 경험이 현재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한국의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고용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요구의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을 위해서 먼저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한국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정책을 그 이념적 배경과 함께 체계적으로 조감한 연구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유럽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연구는 사회적 통합과 경쟁력 있는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유럽연합의 통합교육전략을 살펴보는 연구들이었다. 첫째, 유럽연합의 고등교육에 관한 개혁 정책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학교육 정책 변화 방향"[5]과 "유럽연합의 대학교육 현대화와 개혁 정책"[6] 등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등장 했으며, 유럽내 대학교

육의 현대화와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중요한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학 간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직업교육 훈련 및 노동에 관한 평생교육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의 학교 직업이행 정책의 변화와 평생학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7]와 "세계화 시대 유럽연합의 새 노동사회 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8], 그리고 "유럽의 직업자격제도의 변화 경향 및 특성"[9] 등에서는 북유럽국 중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직업으로 이행 될 수 있는 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고, 결국 세계화 시대에 양극화 해소 및 고용창출 전략을 제시 했다. 특히 유럽국가간 직업과 관련된 자격제도의 상호인정 배경과 인정방식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셋째, 유럽통합과 관련된 평생교육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전략과 시사점"[10]과 "국제기구 평생교육 정책 동향"[11],과 "유럽연합 통합교육 시스템"[12], 그리고 "EU의 평생학습정책 담론 분석"[13] 등에서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정책의 전개 방향과 평생학습정책의 성과 및 과제를 제시 했으며, 특히 유럽지역 평생교육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들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유럽연합의 교육협력에 대한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현대화와 그것을 위한 새로운 정책, 직업교육,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사회통합과 교육복지 추구는 물론,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들의 함의를 이용하되 현재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속에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정책의 기본이념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유럽연합내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국민소득수준 및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자료는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국외통계자료 및 국내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이러한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새로운 평생교육정책의 전환에서 찾으려는 것처럼,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추진 상황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로써 나타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강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정책 수립 배경

1. 유럽의 통합평생교육정책 발전과정과 한국평생교육의 등장

유럽연합 국가들은 각기 자국민의 노동기술수준과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에 투자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유럽통합에 직면한 변화와 갈등을 헤쳐 나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존 평생교육정책의 혁신은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14]. 또한 유럽연합은 물론 OECD도 2000년 이후 평생교육을 단일정책 목표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로서 판단하였다.

유럽연합은 1996년을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의 해”로 정한 후에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웠다. 또한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의 교육 및 직업훈련을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적 틀 안에 넣기 시작 했다. 이러한 평생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유럽연합을 역동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둘째는 유럽내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통합적인 평생교육정책 실행을 통해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을 더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2002년 유럽연합위

원회는 교육과 직업훈련을 사회적 통합은 물론, 적극적인 시민의식 함양 및 개인의 직업적 성취, 그리고 적응력과 고용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겼다. 이렇게 시대적 발전 과정에서 평생교육 정책은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되었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 갔다. 더욱이 2004년 유럽연합위원회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유럽통합의 정책을 “Education Training 2010 Work Programme”이라는 틀 안에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목표를 내세우면서 합의의 이 끝었다. 첫째는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의 질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둘째는 이러한 제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셋째 이 제도를 더 넓은 세계에 개방하여 유럽국경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유럽연합이 새로운 사회통합과 사회포용정책을 제안한 것은 모든 시민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교육과 훈련 및 일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또 사회발전과정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경쟁력 향상과 유럽연합의 경제성장을 만드는 것이다[15]. 유럽의 통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국의 고유한 입장을 인정하고 이를 조절해 나가면서 동시에 통합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정책 보다는 역사적으로 더 짧은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한국 평생교육의 등장은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2000년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2007년 12월 다시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마침내 평생교육의 근본이념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2000년대 초기 한국의 평생교육은 유럽연합과 같은 평생교육의 철학적 이념에 기반을 둔 정책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90년대 말 IMF라는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실용주의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이것은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려는 성과 우선주의 정책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었다. 즉, 평생교육정책이 평생학습 문화가 지닌 공동체내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사회적 포용이라는 의미보다는 국가사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측면의 인적자원

개발의 의미가 더 강조된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형식적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들을 대부분 받아 들였다고 볼 수 있다.

2.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현황과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발전

유럽연합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 중에서도 교육협력은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업일 것이다. 특히 교육이라는 분야는 우선 각 국가의 주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유한 문화와 언어 및 전통과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성과 효율성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였다. 다양성 존중과 차이에 대한 가치존중은 유럽연합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에서는 3가지 대표적인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는 SOCRATES프로그램이고, 그 외 Leonardo da Vinci프로그램과 Youth for Europa프로그램이 있다[16]. 첫째, SOCRATES프로그램은 고등교육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ERASMUS, 학교교육분야의 모든 단계인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협력증진을 위한 COMENIUS, 언어학습 강화를 위한 Lingua, 교육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원격학습인 Open and Distance Learning(ODL), 그리고 성인교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Adult Education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Leonardo da Vinci프로그램은 유럽공동체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써 대학과 기업체 사이의 협력을 포함한 평생직업훈련 촉진 프로그램이다. 셋째, Youth for Europa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SOCRATES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 교류를 통해 유럽공동체구축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다.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의 영역 분류와 특성에 대해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

표 1. 유럽연합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분류[17]

구분	코메니우스	에라스무스	레어나르도 다빈치	그룬트비히
개요	유럽지역내의 학교교육대상 프로그램 (초, 중등교육)	유럽지역 대학 재학생, 교직원 대학조직에 대한 프로그램 (고등교육)	기업/고용활동에 필요한 기술훈련교육 지원 (직업훈련 교육)	성인교육기관 교강사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파트너십 지원 (직업훈련 제공 (성인교육))
목표	-다양한 유럽의 문화, 언어, 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개발 -교육수준향상을 위한 교류협력 -성인교육의 혁신 ICT기반교육 향상 -교원의 질 향상과 지원	-고등교육기관 개혁 -유럽학생 및 학자교류 -2010년까지 유럽 고등교육 지역화 구축	-자기개발촉진 -전 유럽에 걸친 학습기회 -기업, 사회적 파트너 지향 -직업교육 훈련 혁신 촉진	-성인교육 대상자 교류증대 -노인, 저학력층 및 취약계층, 소외계층 성인 교육제공 -평생학습혁신 ICT기반 교육 서비스 개발 지원
전략	-개인교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학생, 교강사 교육과정 개발 -집중화 프로그램 -네트워크	-개인교류강화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가 네트워크	-성인교육관련 파트너십 극대화 -상호이익에 초점을 둔 -전문가와 단체 네트워크 -원격학습체제 구축
협력	-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교사훈련과정 및 내용개발	-연구과정개발 -대학/기업협력 -인터넷 대학 추진	-혁신 전이	-교육내용 및 방법개발 -제도 및 정책 개발

위 [표 1]에서 성인교육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통합평생교육 전략프로그램은 그룬트비히(Grundtvig Programme)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 프로그램이며 성인들의 지식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목표는 첫째, 유럽연합지역 내의 성인학습자 및 성인교육 전문가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2013년까지 약 7천명 이상 교류증진을 시키며, 둘째, 성인교육기관 간 협력 체제를 갖추고, 셋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 성인교육분야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통한 ICT기반 교육콘텐츠개발 및 성인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개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자들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8].

유럽연합의 교육협력은 유럽지역 전체의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교육 및 훈련기관을 포함하며, 장기적인 유럽통합비전을 담은 리스본 전략(Lisbon Process)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정책이다. 2000년도에 유럽연합위원회는 이 리스본 전략에 기반을 두고 대학들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혁 그리고 내부 경쟁구조를 구축하여 유럽연합을 지식기반사회로 전환 시켰다. 여기서 리스본 전략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양극화 척결 및 거시적 경제정책수립 그리고 유럽내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2006년 유럽의회에서는 8가지 평생학습핵심역량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19]을 채택하여 통합적 교육체제 개혁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8가지 평생학습핵심역량은 학습자의 모국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수학, 과학, 공학분야의 기초능력, 디지털 활용능력,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 사회적 및 시민의식역량, 자발성 및 기업가 정신, 그리고 문화적 의식 및 표현 등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평생교육정책도 2001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진흥계획을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제1차 (200~2006)와 제2차 (2008~2012)에 걸쳐 수립하고,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1차 평생학습진흥계획은 평생교육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개인 학습자들의 자아실현과 소외된 집단의 사회적 통합과 포용 및 전체 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점에서 긍정적이나,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태의 사업으로만 나열된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머무른 한계를 들어냈다고 보고 있다[20]. 그러나 제2차 계획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평생학습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차원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만족시킬 의무를 시행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차 계획에도 들어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정책적 논리체계를 구동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겠다.

표 2.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발전 과정

계 획	사업기간	목 표 및 과 제
제1차 평생학습 진흥 종합계획	2002 ~ 2006	1. 평생학습 기회 균등화 2. 평생학습의 지역화 3.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4. 일터의 학습 조직화 5. 평생학습사회기반 강화
제2차 평생학습 진흥 종합계획	2008~ 2012	1. 생이 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2.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반 참여 및 연계 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3. 평생교육 참여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평생교육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참여율이라는 인적자원개발 맥락에서 평생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유럽 국가별 비교를 통해 평생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획득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개인의 성장 즉, 개인의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증대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아실현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는 고용능력과 국가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럽연합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사회경제적성공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에 대한 교육의 수익측정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들 간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Cohn & Addison(1998)[21]은 OECD국가들의 평생교육참여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장수명(2004)[22]의 연구는 한국의 전반적인 교육과 경제적 성장관계를 측정한 연구로써 국가 경쟁력 모형인 포터모형과 IMD모형을 분석하면서 교육지표들과 관련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평생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GDP나 경제적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적 삶에서 비경제적인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시키면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성장에 파급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23] 연구에서도 평생교육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거시적으로는 GDP와 경제활동 참여율 및 국가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노동기술수준 및 고용의 안정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을수록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증대를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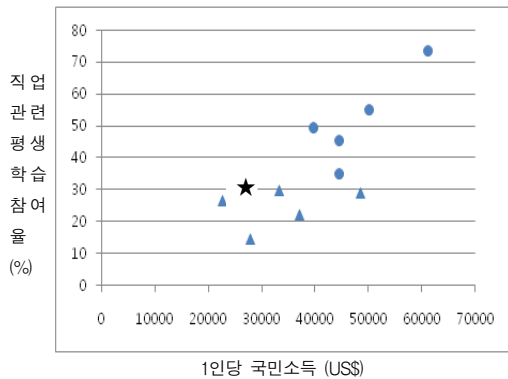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유럽연합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평생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유럽연합내 국가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관련된 지표들은 [표 3]과 [그림 1]을 통해서 보듯이 그들 국가들의 국민소득수준의 양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소득수준과 참여율과의 양적인 상관은 이들 변수들 간의 내생적 쌍방향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평생교육에 참여가 높음에 따라 인적자원의 축적과 고용의 증대는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나며, 또한 역으로 국민소득의 증가는 인적자원의 축적을 높이는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향상시키게 되는 쌍방향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 조사"[24] 결과를 바탕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평생학습이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취업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유럽 10개 나라 국민소득과 평생교육참여율 비교

북유럽국	국 민 소 득 (US \$)		평생학습참여율(%)	
	2009년 1)	2011년 2)	2010년 3)	2011년 4)
스웨덴	37,905	61,098	73.4	73.4
핀란드	34,650	50,090	55.0	55.0
프랑스	33,655	44,401	35.1	35.1
영국	36,496	39,604	49.3	49.3
독일	36,449	44,558	45.4	45.4
OECD평균			40.8	40.2

남유럽국	국 민 소 득		평생학습참여율	
	2009년	2011년	2010년	2011년
스페인	32,545	33,298	30.9	29.8
포르투갈	24,021	22,699	26.4	26.4
이탈리아	31,909	37,046	22.2	22.2
아일랜드	41,278	48,517	28.8	28.8
그리스	29,663	27,875	14.5	14.5
한 국	23,749	27,163	30.5	32.4

[자료 : 1) World Bank2009, 2) 위키피아 백과사전2011
3), 4) Education at a Glance 2010, 2011]



- ▲ 남유럽국 :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 북유럽국 :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 ★ 한국

그림 1. 유럽지역 직업관련 성인평생학습 참여율과 국민소득의 관계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조사하면서 교육과 평생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직무관련활동, 사회문화적 참여, 외국어, IT기술 등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통계단위는 전 국민 학습참여 활동이며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남유럽과 북유럽 몇몇 국가로 구분하여 샘플링 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중심으로서 사회경제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북유럽 국가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유럽 PIIGS국가들은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소극적이었던 것을 북유럽 보다 높지 못한 국민소득 수준과 현재 국가운영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 IV. 1).

IV. 유럽의 사회경제적 통합 위기가 한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주는 시사점

1. 유럽 평생교육통합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유럽연합은 1996년을 “유럽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하면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유럽연합의 통합발전을 위한 핵심영역으로 만들어 갔다. 이렇게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서로의 신뢰형성을 통해 사회포용정책으로까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2008년 이후 몇몇 국가들의 경제침체와 재정위기로 유럽연합 전체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국가들이라 할 수 있는 PIIGS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산업구조와 재정구조 및 경제체질로 인하여 재정위기에 놓여있다. 이들 나라들의 경제위기 상황을 [표 4]와 [그림 2]를 통해서 살펴 본다.

표 4. 유로존 경제위기상황 -PIIGS-

2011년말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한국
실업률	13.6	14.5	8.9	19.2	22.9	3.1 1)
GDP대비 재정적자	5.8	10.3	4.0	8.9	6.6	
청년실업률	30.8	29.0	31.0	47.2	48.7	7.6 2) (16.7)

[자료 : 유러스태트 (유럽연합 통계청)2011, 1) OECD, 2) 7.6 : 한국통계청, 16.7 : 한국고용정보원]

[표 4]와 [그림 2]에서 보듯이 스페인과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이 약 50%에 육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남유럽 및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을 상실시키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을 실시함에 따라 고용사정이 최악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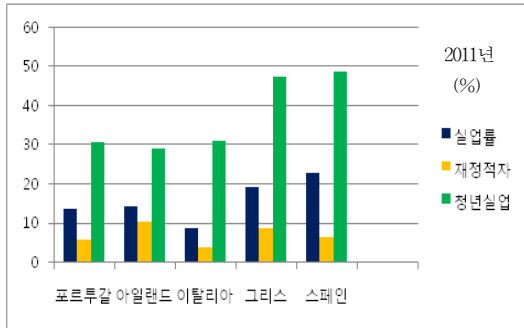


그림 2. PIIGS 경제위기 상황

경제위기 속에서 더 큰 문제는 유럽을 떠나 남미나 아시아로 이주하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경제 재건에 필요한 고급인력들이라는 점이다. 당분간 이러한 유럽 엑소더스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이 PIIGS국가를 떠나는 많은 젊은 인력들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독일로 이주한 사람은 약 43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두고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 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긴축을 통한 구조조정과 다른 하나는 긴축을 벗어난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PIIGS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이며 과도한 복지지출 및 재정과 관련된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들 나라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과 서비스업에 치중한 산업구조 등으로 취약해진 세입기반이 국가부도위기를 높였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5].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정책 관점에서 보면 일회적인 소비성 복지보다는 투자성 복지(자립지원 복지), 즉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한 계속직업교육 및 훈련의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들이 그 나라 실업을 해소 방안으로 국민들의 평생학습참여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성인 및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이라는 성인평생학습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구체화 된 대안이어야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도 특정 국가에 있어서 가장 잘 교육받은 사람들과 적게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의 사

회경제적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유럽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시대에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유럽 내에 사회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하겠다. 가장 뛰어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 국가들이 가장 빠르게 선진 지식사회 및 지식경제를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 간 서로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을 통한 평생학습사회실현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의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협력을 이끌어 가야 한다.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을 평생교육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평생학습참여에 대한 불평등 해소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내의 국가별 국민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평생교육참여율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평생학습참여의 불평등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 연령에 따른 불평등,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지역적 차이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참여에 대한 지원과 전달방식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국가경제발전이나 재정적 안정성 및 국민소득 수준이 평생교육 참여율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 III.3.에서와 같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높은 국민소득 수준과 평생교육 참여율이 서로 양방향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유럽연합 내의 PIIGS의 조속한 재정적 안정을 통해 국가 간 벌어지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줄여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평생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가 간 협력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평생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PIIGS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용보호제도는 물론 고용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차원에서 직업제

교육과 양극화 현상 속에서 비롯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평생교육정책이 제시 되어야 한다.

셋째, 유럽연합은 경제적,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평생교육정책을 통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취약 국가를 포함한 유럽연합 전체, 즉 정부, 지역 사회, 기업의 경영자, 노동시장의 근로자 및 그 외에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여러 집단 간의 긴밀하고 역동적인 협력관계를 보다 조직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통합을 위한 노동정책, 교육정책, 직업훈련정책 등이 평생교육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관성 있는 진행을 이끌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적 파트너 및 교육기관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중심의 평생학습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유럽연합국들 간에 전문지식과 학문적 경향을 공유하며 학습과 관련된 관심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의 필요성을 확산 시키면서 개방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멀티 미디어도입이 이루어져 원격학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통합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 경제 및 재정적 위기 속에 있는 국가와 재정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국가 간의 국가적 양극화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국가 간 교육협력을 보다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좀더 다양화하면서 국가 간 교육복지의 불균형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그 성격의 경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 하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유럽을 떠나는 젊은 인적자원들을 어떠한 지원과 제도를 통해 막을 것인지 그들의 통합적인 대책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SWOT분석과 새로운 전략 제시

유럽연합은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재정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유럽연합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미 1990년대 말에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IMF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 시기 국가경제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실용주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대량실업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국들이 추구하던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에 기반을 둔 평생교육체제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안정 및 새로운 고용창출에 치중한 전문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에 중점을 둔 평생교육정책을 세웠던 것이다.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PIIGS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위기극복 경험을 필요로 할 것이며, 특별히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합한 유럽적인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 체제 및 육성 지원체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초 이 법을 시행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들을 수립하였다. 그 이후 국민소득수준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기 전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이 10%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표 3]에서와 같이 2010년 이후 30%이상으로 증가 했음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국민소득수준과 평생학습 참여율의 두 지표가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보면서 이들 변수들 간의 쌍방향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결과를 유럽연합국들의 상황과 똑같이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0여 년간 한국정부의 평생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를 SWOT분석[표 5]을 통해 살펴보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정된 고용창출과 국민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평생교육 정책의 내적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평생교육의 외적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요소를 찾아본다. 그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점은 체계적으로 잘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 개선시키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잘 활용함은 물론 위협적인 문제요소들을 미연에 방지시켜야 할 것이다.

표 5. 한국평생교육 발전과정에 대한 SWOT분석

긍정적 요소	
평생교육의 내적 환경	Strengths (강점) 1.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2. 국가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아닌 학습자 주도 학습문화 형성 추진 3. 평생학습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4. 지식사회에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 5.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수준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원격 교육을 통한 시·공간의 한계 극복)
	Opportunities (기회) 1. 평생학습참여 및 직업훈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재조명 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2. 국가 정부 중심적 주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한 다차원적 사회통합을 형성해 갈 수 있음 3. 평생학습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정당화 하고 개인의 사회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불평등 요소들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음
부정적 요소	
평생교육의 외적 환경	Weaknesses (약점)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시혜적 차원의 정책에 머무름 (고령화 노인교육, 퇴직자 교육, 여성교육 등) 2.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4. 평생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전문강사 인력수급 및 프로그램개발과 인프라가 미흡함 5. 지역과 산업별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에 맞는 직업 능력개발 추진 체계 구축이 미흡함
	Threats (위협) 1.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성과가 정부의 정치적 목표 달성에 만 이용될 수 있음 2.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체제가 아직도 수요자 중심보다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급자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음 3. 평생학습참여기회의 불평등이 또 다른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음 4.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역의 조직 간 비연계성 및 비협력과 정부지원의 불확실성이 존재 함

[표 5]에서 한국 평생교육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의 SWOT분석을 통해 한국 평생교육 활성화와 사회통

합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평생학습진흥에 대한 경제적 성장 가능성측면을 정당화 하여 국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한 포괄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하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궁극적인 사회통합과 포용을 이끌어 갈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의 평생교육정책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형태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목표 달성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인학습자들에게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돕는 학습자 및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 하여야 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사회통합을 위한 양극화 해소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인평생교육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 요소들 즉,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상황, 지역적 차별 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네 번째 전략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지원부분의 불확실성 속에 사업만 나열되는 것과 중앙기관과 지역 하위기관을 연결해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학습진흥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 및 지역의 조직 간에 비협력적이고 또는 비연계성을 탈피하고 중앙기관이 신뢰성을 갖춘 재정지원계획의 확실성을 보여줌으로써 평생교육기관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전문인력 수급 및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촉진 시켜야 한다.

유럽의 경제위기와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이와 같은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 및 발전방향 제시는 한국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며, 국가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발전은 물론 개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를 줄 것이다.

V. 결론

유럽연합의 선진국들은 그들의 복지정책을 고전적 복지에서 교육투자자와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강조하는 사회통합적 복지로 바꾸어 갔다. 이것은 세계화 추세에서 유럽연합적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었으며, 유럽연합 차원의 평생교육정책도 세계화 추세에 따라 형성된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교육복지 모델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 하나였다. 유럽연합은 평생교육정책들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통합정책과 결합시켜나갔다. 이 정책은 사회, 경제, 노동시장 및 교육정책적 요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정책이었다. 결국 국민들의 고용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핵심적 역할이었던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정부, 기업인, 근로자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역동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평생교육정책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책 일관성을 이룩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의 혼란과 유럽연합국 중에서 경제적, 재정적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유럽연합 전체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국민소득 수준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현재 유럽연합 내의 PIIGS 국가들이 경제적,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국민소득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의 차이에서 보듯이 국민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았고, 이것은 역으로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이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한국 평생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유럽연합의 평생교육정책을 토대로 현재 한국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럽연합 선진국들의 평생교육정책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그리고 경

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보며, 앞으로도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정책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한국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그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적 전환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 [1] European Commission, 29 Nov. p.11, 2002.
- [2] European Commission, *Joint Report on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 2006.
- [3] 최상덕, "최근 OECD와 유럽의 평생학습정책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개혁포럼, pp.122-145, 2007.
- [4] 매일경제신문, 2010. 4. 30 기사
- [5] 오정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학교육 정책 변화 방향", 교육개발, Vol.37, 10.3통권 제173호, 한국교육개발원, pp.70-75, 2010.
- [6] 김숙원, "유럽연합의 대학교육 현대화와 개혁 정책",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2006.
- [7] 최상덕, "1980년대 이후 유럽의 학교직업이행 정책의 변화와 평생학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제34권, 제2호, pp.99-128, 2007.
- [8] 민문홍, "세계화 시대 유럽연합의 새 노동사회 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9] 조정윤, 김상진, "유럽의 직업자격제도의 변화 경향 및 특징", 직업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203-212, 2002.
- [10] 최돈민, "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전략과 시사점",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제4호, pp.163-183, 2009.
- [11] 평생교육진흥원, "국제기구 평생교육 정책동향", 2008.
- [12] 유임수, "유럽연합 통합교육 시스템",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7호, pp.76-86, 2005.
- [13] 장원섭, "EU의 평생학습정책 담론 분석", 한국교육

- 개발원 한국교육, 제32권, 제4호, pp.245-266, 2005.
- [14] 최상덕, *앞 문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121-145, 2007.
- [15] European Commission, 2006.
- [16] European Commission, *Guide to programmes, Luxembourg : European Communities*, 1997.
- [17] 평생교육진흥원, *앞 문헌*, pp.15-25, 2008.
- [18] 평생교육진흥원, *앞 문헌*, pp.27-29, 2008.
- [1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en/oj/2006/l_394/l_39420061230en00100018.pdf
- [20] <http://mailzine.kedi.re.kr/Column/MailZine/ColumnViw.php?AcNum0=6952&AcCode=Doololo2>
- [21] E. Cohn and J. T. Addison, "The Economic Returnsto Lifelong Learning in OECD Countires," *Education Economics*, Vol.6, No.3, 1998.
- [22] 장수명,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pp.60-65, 2004.
- [23] 김미수, 김승보, 장수명,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61-74, 2009.
- [2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2005.
- [25] 김필현, "PIIGS국가부도위기의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p.27, 2010.

저 자 소 개

이 성 균(Sung-Kyun Lee)

정회원



- 1998년 9월 :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교(교육학석사)
- 2003년 12월 :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교(교육학박사)
- 2000년 12월 ~ 현재 : 서울 디지털대학교 교육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교육행정,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육철학